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할까

‘국가 주요시설’로 구분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 끼쳐 정부 수용은 미지수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용 불과

제주제2공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영훈 지사에게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투표 근거는=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대상)에는 주민이

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국가 또는 다른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 적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국가 주요시설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지자체장은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손에...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면 제주 제

2공항 관련 주민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건의를 묵살할 경우 주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에 불과해 국토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불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감안해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그냥 건이나 의견 제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 매뉴얼 같은 것, 유권해석 같은 것들을 보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리기자

■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는... 7~8월쯤 기본계획 확정 후 본격 추진

2025년 6월쯤 실시설계 마무리
도의회 환경평가 동의 진통 예상
도의회 통과시 2027년부터 착공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추진이 8년이나 늦어진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고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기존 계획안이 공개되고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주 자치도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오는 7~8월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제2공항 사업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에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연말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된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시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12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와 찬반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설계 승인과 고시,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영석기자

“환경부 조건부 협의 내용 적극 이행할 것”

국토부, 후속절차 수행 피력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6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의 통보와 관련해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조건으로 제기한 사항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습곡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미현기자



제주도와 국회사무처가 6일 제주포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희만기자

도-국회사무처, 제주포럼 발전 위해 ‘맞손’

어제 업무협약... 실무협의회 구성해 외국 의회 협력 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포럼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국회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광재 국회의원사무처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회 및 외국 의회 의원 등 국내외 관계자가 함께하는 세션 개최 ▶주요 방한 인사가 참석하는 국회의장 주최 오·만찬 개최 ▶국회와 외국 의회

의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아세안 국가 10개국 의회의 의원 및 국회의원과 국내의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한-아세안 리더스라운드테이블(가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제주포럼은 매해 국회와 외국 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와 국회사무처는 제주포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제2공항 주요 일지	
▶2015년 11월 10일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입지, 제주 서귀포시 생산을 신산·온평리 결정	▶2020년 6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2016년 1월 = 제주 신산·온평리 제2공항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2020년 7월 = 제2공항 7회 연속토론회(비공개 3, 공개 4)
▶2016년 12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 결론	▶2020년 9월 = 기존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 합의(제주도·도의회·국토부)
▶2017년 4월 =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조기 개항’ 공약 채택	▶2020년 10월 =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2회 심층 토론회
▶2018년 6~11월 = 국토교통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문제 없음’ 결론	▶2020년 12월 = 제주도·제주도의회,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
▶2018년 12월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1년 2월 =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시행 및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전달
▶2019년 2월 = 민주당·국토부 ‘제2공항 현안 해결 당정협의회’	▶2021년 3월 = 제주도,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입장 국토부 제출
▶2019년 6월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2021년 7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2019년 9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환경부 제출	▶2021년 12월~2022년 10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2019년 10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요구	▶2023년 1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2019년 11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2023년 3월 6일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
▶2019년 12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	▶2023년 7-8월 기본계획 확정 고시 예상
	▶2025년 6월 실시설계 마무리 예상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